

시론

사형수김대중의상상력과인공지능시대의인본주의적응답



김 춘 식
동신대학교 에너지경영학과 교수

사형수가 예견한 챗GPT, 우리는 그가 경고한 미래를 살고 있는가. 1981년 청주교도소의 차가운 담장 안, 죽을 앞에 섰던 사형수 김대중이 교도관에게 건넨 전언은 45년이 흐른 지금 전술에 가까운 통찰로 다가온다. 2024년 다큐멘터리 '길 위의 김대중' 제작진이 발굴한 기록은 놀랍게도 오늘날 챗GPT로 대변되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시대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앞으로 지식산업 사회가 오면 컴퓨터가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예언이 아니다. 1966년 다투스 회의 이후 태동한 인공지능학의 흐름과 1966년 조셉 와이젠바움(Joseph Weizenbaum)이 개발한 최초의 챗봇 엘리자(ELIZA) 등 선구적인 기술 궤적을 옥중에서도 치열하게 흡수하며 얻어낸 지적 승리였다.

하지만 김대중이 그린 미래의 정점은 단순한 기술적 예측이 아닌 인간의 정신적 향상에 있었다. 그는 인공지능이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축소시킬 것이며, 그로 인해 확보된 여가가 타락이나 낭비가 아닌 인간 본연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쓰여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될 때, 인간은 그 남은 시간에 정신적인 향상을 꾀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의 목적지가 결국 인본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통찰은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

인인 아우스빌둥(Ausbildung)이 지향하는 인격 도야의 가치와 궤를 같이한다. 기술이 인간을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시킬 때 그 남은 시간을 철학적 성찰과 인격적 완성으로 채워야 한다는 그의 사상은, 직업을 자아 실현의 숭고한 통로로 삼는 독일의 교육 철학에서 실질적인 정책적 모델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김대중은 지식기반경제를 예견하며 모든 국민이 신지식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게 직업은 생계를 넘어선 창의적 자기실현의 장이었다. 이는 서열화와 차별이 없는 독일 교육의 현장과 맞닿아 있다. 독일의 교육이 등수나 등급이 없는 교실을 통해 타인과의 경쟁 대신 내면의 성장에 집중하듯, 김대중 역시 학벌이 아닌 실력이 말하는 직업 세계의 민주화를 꿈꿨다. 실력만 있다면 누구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즉 학벌주의라는 고질적 병폐를 넘어 교육 기회의 민주화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는 사회를 지향한 것이다. 이러한 직업적 평등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적 노동을 보조하는 시대에 더욱 절실해진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저널리스트 안톤 솔츠(Anton Scholz)가 그의 저서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2022)에서 지적했듯,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 시험을 보는 주체적 인간을 길러내는 시스템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가 된다. 김대중은 서생적 문제 의식으로 학력 차별의 불의를 비판하고,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인적자원 육성의 시급함을 꿰뚫어 보았다. IMF 외환위기는 흑독한 시련 속에서도 직업훈련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격상시킨 그의 결단은,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안락함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의 존

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과제와 연결된다. 기술의 풍요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사유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진보가 아닌 퇴보일 뿐이라는 그의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문해력'(AI Literacy) 교육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고전을 탐독하며 깊이 있게 사유하는 습관을 복원해 알고리즘이 설계한 생각의 틀을 넘어야 한다. 독일 학교가 디지털 단절 시간을 확보해 학생들의 집중력을 보호하듯, 우리도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 윤리적 타당성을 반문하는 비판적 대화를 일상화해야 한다. 무분별한 기술 수용을 경계하고 인간의 주체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김대중이 꿈꿨던 신지식인이자, 기술의 도구가 아닌 자유인으로 가는 길이다. 디지털의 편리함에 함몰되지 않고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야말로 새로운 르네상스를 여는 열쇠다.

이제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가 옥중에서 보냈던 미래를 향한 전언을 다시 읽으며, 교육과 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곧 교육 행정을 책임질 선출직 정치인들의 시간이 다가온다. 권력의 주변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금,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과연 후보들의 정책 중심에 교육의 본질과 아이들의 미래가 자리 잡고 있는가? 정치인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미래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해안을 보여줄지 기대한다. 백년대계인 교육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인간 본연의 향상을 돕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응답할지 소망해 본다.

社說

전남광주특별시 성공 출범 정부와 유기적 협업도 중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한 자리에 모여 로드맵을 면밀히 점검했다. 초기 혼란을 최소화해 시민 불편 없는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도는 조직, 인사, 재정,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 분야별 통합 작업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하고, 철저한 사전 점검을 거치기로 했다. 광주, 전남 동·서부권을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야 한다.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광역 지방정부 간의 통합"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밀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실무준비단 구성 이후 첫 합동회의로, 특히 자치법규 정비와 조례 마련, 재정·회계와 정보시스템 통합 및 데이터 전환 등 핵심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7월1일 특별시가 드디어 닦을 올린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며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만드는 역사다. 광주와 전남 각자의 강점을 융합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정책인 지방 주도 성장에 주도해야 하는 역할이 부여됐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해서 약속한 인센티브 20조원 외 추가 재정 지원과 특별법 특례 등 제도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추경안 심의 과정에 건의한 행정통합 비용 500억원 반영까지 긍정 검토돼야 했다.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원팀으로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시·도는 양측 권한대행과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실무준비단장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도 발족했다. 부서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공식 조정기구로 후속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위축된 지역 산업, 경제를 되살리고 청년들이 떠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막중한 국가적 과업이다. 무엇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 실질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전역으로 확대해야 할 산단 노동자 조식 지원사업

광주시의 산단단지 노동자 조식 지원 '간편한 아침 끼' 사업은 시행 첫해인 2023년 1만9천 여식 제공에서 2년 만인 2025년 6만9천여식으로 이용객이 3.6배 증가하는 등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바쁜 출근 시간에도 부담 없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배려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인기가.

건강권을 보장하는데서 나아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 속 경제적 부담까지 낮췄다.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과 연계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채택됐다. 2026년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기반까지 마련했다. 2023년 하남산단 1호점, 2024년 침탄산단 2호점에 이어 올해 평동산단에 3호점 문을 열었다.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2층에 위치하며 평일 오전 6-9시 운영한다. 주요 메뉴는 김밥 1천원, 샌드위치 및 샐러드 3천원 등으로 구성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 전국에서 처음 추진됐다. 김밥 등을 시중 가

격의 절반에 구매가 가능케해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 일부 준비된 물량이 조기에 동남 정도다. 농협 광주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품질 쌀을 기부받아 식자재로 활용, 상생을 도모하며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7만명이 이용하는 노동복지의 혁신적 선도 사례다.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활발하다.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소확행' 시책으로 자리잡았다.

광주가 시작한 노동중흥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통합으로 특별시 출범을 앞뒀다. 지역 내 주요 산업단지 조식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보편적 복지체계를 완성하길 바란다. 지역경제를 탄탄히 만드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청년들의 든든한 하루, 일상의 행복을 위해 지속돼야 한다.

앞으로 '간편한 아침 끼' 4호, 5호점이 나와야 한다. 정기적으로 수요 및 만족도를 조사해 우수한 품질의 메뉴를 추가 개발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다. 더 많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홍보 강화도 필요해 보인다.

문화난장



강 은 경
前 함평손본중학교 교장

학창 시절, 학기 초가 되면 '가정환경 조사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는 어김없이 취미와 특기란이 있었다. 적극적인 취미 생활이 쉽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필자는 취미는 독서, 특기는 피리 연주로 적었던 기억이난다. 친구들과도 비슷했는데 여학생은 음악감상, 남학생은 축구로 적기 일쑤였다. 내가 특기를 피리 연주로 썼던 이유는 그나마 중학교 시절에 관악부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다.

그 당시, 친구들의 집에 가보면 금장을 박은 전집이 책꽂이에 순서대로 나열돼 있었다. 친구들에게 그 책에 대해서 물어보면 장식으로 해놓고 읽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나도 그랬다. 대신 당시 삼풍문고에서 나오는 손바닥 만한 책을 700원을 주고 사서 보거나, 매달 발행되는 '소설주니어'를 보는 일이 전부였다. 그래도 그 덕분에 고등학교 시절, 이과생이었던 내가 학교 백일장 대회에서 '운동화'라는 제목의 글로 당당히 최고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 시절에는 동아리

함께 읽는 즐거움

활동에서 읽어낸 몇 권의 책을 제외하곤 전공 공부만 하느라 다른 책들은 멀리했다. 교직 시절에도 '전문직학습공동체'라는 모임 만들어 책을 읽고 토론을 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나는 책을 고를 때, 선호하는 작가의 책, 베스트셀러, 상담과 관련된 책 위주로 하다 보니 항상 편독이 문제였다.

편독의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싶었던 나는 집 인근에 위치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회관)에 금요독서회가 있음을 알게 됐다. 학생회관에서는 금요독서회가 한 달에 한 권을 정해 일년에 읽을 책을 미리 알려주면, 독서회 회원들만 돌아가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월별로 네 권의 책을 사준다. 또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함께배움실'도 내어준다. 집 근처에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다는 건 행운이다. 그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금요일 오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은 참여가 어려운 모임이다. 나는 작년 8월에 퇴직을 하고 곧바로 신청해 그해 9월부터 금요독서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이경 작가는 올바른 독서 방법으로 "첫 눈에 반한 책을 읽어라. 자기 안에 질문이 있을 때 읽어라, 그리고 함께 읽어라."고 하면서 '다독, 정독, 함께 읽기'를 권한다. 독서회 활동을 하려면 이 세 가지는 필수다. 올해 1월에는 내가 추천한 책, 유발하리의 '넥서스'

를 읽고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회원들은 책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을 했고, 학생회관 측에서도 그렇게 두꺼운 책은 여러 권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해냈다. 2월에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헝가리 크리스티너 로키 라슬로' 작가의 작품인 '사탄탱크'를 읽고 토론을 했는데, 내용이 어쩌나 어렵던 지 두 번을 읽어야만 겨우 이해가 됐다. 그날은 회원들의 생각이 무척 궁금했다. 회원들의 의견은 '글자에 끌려다녔다. 줄거리가 산만하고 문체가 어렵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겨우 책을 읽어본 심정이다. 노벨문학상의 장벽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읽었다. 집단 지성이 중요한 것 같다.' 등으로 다양했다.

필자는 매번 모임이 끝나면 소감문을 만들어 회원들과 공유했다. 혼자였다면 다가서지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했을 책들을 함께 하는 이들이 있어 끝까지 읽어낸다. 혼자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도 토론을 위해서 더 꼼꼼히 읽고 정리한다. 회원 수는 30여 명이지만 모임에 나오는 수는 10명 정도이다. 우리는 개인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책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연대감을 갖는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모임을 '약한 연대'라고도 부른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감정적인 지지를 얻고, 지적으로 자극이 되는 즐거움을 누린다.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독자투고

최근 도로 위에서 운전 중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앞차를 추월해 급제동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일이지만, 이는 엄청난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면,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목표 표로 삼아 의도적으로 공포심을 주는 행위이다.

단지 상대방 차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이라는 거대한 쇳덩이를 무기 삼아

위험천만 '보복운전' 절대 안 돼

휘두르는 것은 도로 위의 폭력과 다름없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적용되며,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 입건 시 벌점 100점과 100일간의 면허정지, 구속 시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보복운전의 시작은 대개 운전 중 상대의 끼어들기나 경적 소리 같은 사소한 작은 오해에서 비롯되며 내가 실수를 했을 때는 비

상등으로 즉시 사과해야 한다. 또한 상대가 무례하게 운전하더라도 직접 대응하기보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스마트국민제도 등으로 신고하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보복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가족까지 비극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우리는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약속을 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4팀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카시 광장



따뜻한 마음

모춘복

마주 보지 않아도
하나의 이름으로 번역된다

멀어 보이지만
너와 난 이미 하나

사랑이야

※시작노트
사랑은 언제나 마주 보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을 안고 가면서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마음
더 오래 그리고 더 깊게 서로를 어어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제는 앓을 때도 마주 앉기 보다는 옆에 앉기를 좋아하며.
/광주다카시연합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 본 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로로 15,000원 1부 800원